

차마 폐지수집상에 넘길 수 없었던 '탁월한 균형감각'

E.K.헨트의 《경제사상사》

최용식

야인 신분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취미삼아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더욱이 제도권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길을 간다면 그 고생은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 온 내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한때는 혹시 하늘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 이 길을 가게 한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했을 정도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고생시키는 내 꼴이 한심해서, 그동안 써놓았던 원고를 몽땅 태워버리고 어렵게 사 모았던 책들도 폐지수집상에 쥐버린 적이 있다. 경제학 책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헌책방에서 잘 사지 않을 뿐더러, 낙서로 가득 찬 책을 누가 사겠는가? 그래도 아까워서 책 몇 권은 기어이 남겨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E. K. 헨트가 저술하고 김성구와 김양화가 번역하여 풀빛출판사가 내놓은 《경제사상사》다.

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닌 경제학 관련 책은 손해를 안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출판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 책은 원작이 출판된 지 불과 3년 만인 1982년에 처음 번역되어 나왔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당시는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을 딛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이 폭압정치를 펼치던 때로서 시대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책을 쓴 헨트는 마르크스 계열의 경제학자였다. 정권안보에 혈안이었던 당국이 이 책에 시비를 건다면 무시하지 못할 수 있었다. 아니, 빨갱이나 간첩으로 몰리면 꿈쩍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번역자와 출판사의 이런 용기가 이 책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내가 이 책을 높이 사는 것은 이들의 용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르크스 계열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어서도 아니다. 다른 경제학설사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균형감각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경제학계를 양분해 왔던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던 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꼭 필요한 책이었다. 마르크스 계열의 경제학은 청계천 헌책방을 애써 뒤져서 일제시대에 쓰인 일본책을 본 것이 전부였던 터라, 이 책이 당시의 내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기도 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에서 벗어난 다른 경제학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케인즈는 자세하게 다뤘지만 그와 쌍벽을 이룬다는 평가를 듣는 슈페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케인즈가 수요의 관점에서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 슈페터가 공급의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신제품 시장 그리고 비용인하 등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물론 이 책이 발간된 때는 케인즈 경제학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때라서 슈페터에 관한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슈페터의 제자들조차 케인즈 학파로 변신하지 않았던가!

무엇보다, 제도학과와 역사학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은 모든 학파를 통합할 패러다임을 추구하던 나로서는 특히 아쉬웠다. 전반적으로 마르크스 계열의 학자들에게 다소 편중된 점이 내 아쉬움을 더 키웠다. 마르크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톰슨과 호지스킨을 비교적 충실하게 다뤘다면, 역사학파에 속하는 베버와 리스트에게도 그 정도의 비중은 두어져야 바람직했다. 또한 유한계급론을 내세운 베블렌과 제국주의론을 주창한 홉스, 룩셈부르크, 레닌 그리고 절대가치척도를 증명한 스타파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주류경제학계의 이단아에 속하는 갈브레이스나 하이에크 정도는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점들이 이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경제학이 발전해 온 역사를 다른 어느 책보다 비교적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하나만 읽어도 경제학설이 발달해 온 역사는 대강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를 다루기에 앞서 그 전의 경제사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했고, 치열한 상호논쟁을 통해 경제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맬더스와 리카도, 고전파 경제학의 철학적 기반을 닦은 벤담, 세이, 시니어 등을 빠짐없이 다뤘다. 또한 효용과 교환의 경제학적 중요성을 제기한 바스티아와 고전파 경제학을 완성시켰다는 평을 듣는 밀도 충분히 다뤘다.

그런데 대공황을 맞아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경제학까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활약했던 마르크스 계열의 학자들은 빠뜨리지 않았지만(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소련식 사회주의, 즉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생산과 분배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코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혹시 헝가리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기에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이 책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대공황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한 케인즈를 좀더 비중 있게 다루는 균형감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책의 강점은 또 있다. 시대상황의 전개와 경제학설이 어떤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으로서 현실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는데, 이런 점을 이 책은 간과하지 않았다. 경제학설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을 용케도 벗어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뚜렷한 한계를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 이 책이 발간된 뒤 불과 10여 년 뒤, 마르크스 경제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소련이 붕괴했는데, 이를 내다볼 만한 이론적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장기능 도입과 대외개방을 통해 번영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것은 이 책의 한계라기보다는 현 경제학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경제학이 더 발전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문**

《경제사상사》 E.K.헨트 지음 | 김성구·김양화 옮김 | 풀빛 | 374쪽 | 값 12,000원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ecnms.pe.kr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등이 있다.